

광주 FC '승점4' 홈 4연전 마감

"순위 싸움 지금부터"

1승1무2패 기록

'절반의 성공' 광주의 순위 싸움은 지금부터다.

광주 FC가 지난 27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경기를 끝으로 6월 8일 연전 일정을 마감했다. 경남, 인천, 전남, 전북과의 경기에서 얻은 성적은 1승1무2패 12위.

A매치 휴식기 동안 목포에서 자유 훈련을 했던 광주는 승점 9점을 노리며 6월 스타트를 끊었지만 4점을 챙기는데 그쳤다.

광주는 지난 23일 전남과의 경기에서 6골을 몰아 넣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하며 13경기 만에 안방에서 승전보를 울렸다. 6월 13일 그리고 17일 진행된 경남·인천전에서 아쉽게 1무1패에 그쳤던 광주의 시원한 승리였다.

잠잠했던 미드필더 이승기가 중원을 휘저으며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공격수 김동섭도 두 골을 몰아 넣는 등 흥을 끌었다.

허슬했던 전남의 태세에 일격을 가하면서 광주는 '피지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화끈한 득점민들이나 많은 실점을 기록해왔던 광주는 모처럼 골득실차 관리도 하며 승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했다.

광주는 전남전 분위기를 몰아 전북과의 6월 마지막 대결을 기다렸다.

전반 9분 만에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기록한 광주는 전반 16분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동점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키커를 차자한 복이의 실족이 나오면서 땅을 쳤다. 여전 차례 터진 위험적인 슈팅도 아쉽게 골대를 비켜가면서 0-3의 패를 기록했다.

경기가 끝난 뒤 광주 최민희 감독은 "6월에 9점 정도를 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4점밖에 챙기지 못했다. 이유들은 있는데 안정적으로 침착하

게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 골은 욕심만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아쉬운 심경을 밝혔다.

광주 전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했다.

최 감독은 "전남전 분위기를 이어서 잘해보려고 했고, 선수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지만 순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 아쉬웠다. 실력차가 났다. 광주가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젊은 선수들이니까 잘 영글 수 있도록 다음 준비를 잘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감독은 패배가 계속되자 '냉정한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고 선수단에 일침을 가했다. 엔트리에도 변화를 줬다. 실력에 맞는 플레이와 노력 그리고 팀 워크를 강조한 것이었다.

광주 선수들은 6월 홈 4연전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고, 열정만으로는 프로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가르침도 얻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다.

패배를 통해 프로무대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K리그 막내 광주는 7월 1일 오후 5시 FC 서울과의 19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체중 정권호 금 편치

전국중고대아마 복싱

광주체중 정권호(3년)가 금빛 편치를 선보였다.

정권호가 28일 충주체육관에서 열린 제62회 전국중고대아마추어 복싱 연맹선수권대회 남중부 56kg급에서 회전중 채동훈을 8-2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80kg에 출전한 박주혁(광주체중 2년)은 부상으로 인한 기권패로 동메달에 만족했다.

경기가 끝난 뒤 광주 최민희 감독은 "6월에 9점 정도를 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4점밖에 챙기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TEAM 2012의 사령탑을 맡은 성남 신태용(왼쪽) 감독과 TEAM 2002의 안정환 K리그 명예 흥보팀장이 1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 기자회견을 갖고 올스타전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프로축구연맹제공)

박지성 K리그 올스타전 뛴다

7월5일 서울월드컵경기장

'TEAM 2002' 멤버로 출전

'캡틴' 박지성(31·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1년여 만에 국내 그라운드에 오른다. 박지성이 내달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올스타전 2012' 멤버로 참가한다.

지난해 국가대표 은퇴선언 이후 1년 여 만의 국내 경기다.

박지성은 오는 4일까지 팀의 프리

시즌 캠프에 합류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올스타전 참가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퍼거슨 감독과 구단에 직접 연락해 외유를 허락받았다.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에게 9일까지 훈련장이 있는 캐링턴으로 합류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딩크 감독이 이어 '캡틴' 박지성 까지 올스타전 멤버로 합류하면서 2002월드컵 4강 신화 멤버들이 마침

내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됐다.

박지성과 히딩크 감독의 참가 확정으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번 올스타전은 2002월드컵 멤버로 구성된 'TEAM 2002'와 2012 K리그 올스타로 꾸려지는 'TEAM 2012'의 대진으로 7월5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팬 투표를 통해 성남 신태용 감독을 사령탑으로 하는 'TEAM 2012' 베스트 11이 선정됐으며, 프로축구연맹 후보선정위원회에서 28일 나머지 멤버리를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미드필더 이승기가 'TEAM 2012' 멤버로 출전한다.

◇2002월드컵 대표팀 초청 K리그 올스타전 2012 선수명단 ◆TEAM 2002

▲감독=거스 히딩크 ▲코치=정

해성(전남 감독) 박항서(상주 감독) 김현태(인천 코치) 최진한(경남 감독) ▲GK=이운재(전남) 김병범(전북) 최은성(전북) ▲DF=현영민(서울) 최성용(강원 코치) 최진철(축구

협회 전임 지도자) 김태영(올림픽대표팀 코치) 이민성 흥명보(올림픽대표팀 감독) 송종국(해설위원) ▲MF = 김남일(인천) 유태철(대전 감독) 최태우(서울) 이을용(강원 스카우트) 박지성(맨유) ▲FW=설기현(인천) 최용수(서울 감독) 차두리(蔚山 도르프) 황선홍(포항 감독) 안정환(경기 명예 흥보팀장)

◆TEAM 2012

▲감독=신태용(성남) ▲코치=이

영진(성남) ▲GK=정성룡(수원) 김

영광(울산) 김용대(서울) ▲DF=최

효진(상주) 아디(서울) 유경렬(대구) 곽태휘(울산) 홍정호(제주) 신광

훈(포항) 정인환(인천) 보스나(수원) 김창수(부산) ▲MF=이승기(광주) 이현수(전남) 강승조(경남) 에닝요(전북) 윤빛가람(성남) 김정우(전북) 하대성(서울) 김형범(대전) ▲FW=이근호(울산) 김은중(강원) 이동국(전북)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월5일(목)

▶(원)광주체육관경기 경남 밀양 가지산 7월5일(목)

▶(원)광주체